

## 땅 언약 (Land Covenant)

- Theocratic kingdom 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 모세는 신정통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대해 이 언약을 통해 세가지 포인트를 강조함.
  - 첫번째 포인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 창 12:1, 7; 13:15, 17; 15:7-21; 17:8; 이삭-24:7; 26:3; 야곱-28:4, 13, 15; 35:12; 48:4; 50:24) 에 대한 내용을 확장 (더 자세하게 설명).
    - 레 25:2, 18, 38; 26:14, 15, 41-45의 내용도 확장하심.

## 땅 언약 (Land Covenant)

- 이 약속(언약)을 가리켜 Land covenant or Palestinian covenant (30:1-10)라고 부름.
-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 땅(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쫓겨나 흩어질지라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것. 즉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첫번째 포인트
- 신명기에서 확증해주는 두번째 포인트: 신정통치국가는 두가지 단순한 원칙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 순종은 축복을 초래, 불순종은 저주를 초래한다는 원칙.

## 땅 언약 (Land Covenant)

-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 조상들(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
- 하지만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신명기에 열거된 약속된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
- 모세는 물질적인 축복, 화평,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누리게 될 번영(부유)의 축복들을 리스트 업하고 있음.
  - 28:1-14 (특히 11절).
-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당하게 될 저주도 열거하고 있음
  - 28:15-35 저주의 내용 - 가난 (17-18), 병 (21,22), 가뭄 (23-24), 전쟁에서 패배 (25-26), 종기 등 병 (27), 정신병? (28), 헛수고 (30-31)...
  - 28:36ff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뽑힘 (cf. 렘 39:1-9)

## 땅 언약 (Land Covenant)

- 가난 (44), 이스라엘을 향한 표적(sign)임을 강조 (46), 타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비참한 상황 겪음 (49-57), 질병으로 국민들 수가 줄어듦 (58-62),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남 (63-68).
- 세번째 땅언약에서의 강조점: means of restoration.
  - 이 모든 저주와 징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해결방법은 ‘회개.’
  - 이 회개 안에는 겸손,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죄를 버림..이 포함됨. 이것들을 행할 때 God would resume working out the Abrahamic promises on behalf of the nation.
  -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침례자요한이 외쳤던 것. 그리고 앞으로 7년대환란 끝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겔 36:25-28, 31; 37:11, 14, 24, 25).

### 땅 언약 (Land Covenant)

- 가난 (44), 이스라엘을 향한 표적(sign)임을 강조 (46), 타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비참한 상황 겪음 (49-57), 질병으로 국민들 수가 줄어듦 (58-62),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남 (63-68).
- 세번째 땅언약에서의 강조점: means of restoration.
  - 이 모든 저주와 징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해결방법은 ‘회개.’
  - 이 회개 안에는 겸손,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죄를 버림..이 포함됨. 이것들을 행할 때 God would resume working out the Abrahamic promises on behalf of the nation.
    - 1-4절 - 생각하고...돌아와...순종...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데려 오시리라...8절, 돌아와서...순종하고...행하리라..

### 땅 언약 (Land Covenant)

- 5절 - “땅”으로 ... “그 땅을 소유...”
- 9절 - 부자가 되게 해주심.. 잘되게 해주심..
- 10절 -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 회개.
- 16절 - 이스라엘에게 “번성”하고 그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
- 20절 -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팔레스타인)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 말.
-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침례자요한이 외쳤던 것. 그리고 앞으로 7년대환란 끝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겔 36:25-28, 31; 37:11, 14, 24, 25).

### 아웃라인

- 모세의 마지막 말 (31-34)
  -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함 (31)
  -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하며 명령함 (31:14-21)
  - 율법의 책을 보관함 (31:22-30)
  - 모세의 노래 (32:1-52)
  -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함 (33)
  - 모세의 죽음 (34)

### 율법의 가치

- 신약성경을 읽은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곤 합니다. “This would have puzzled the ancient Israelite for whom there was hardly any greater display of God’s grace than that demonstrated in his giving of the law” (Hill & Walton, *A Survey of the OT*, 175).
-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왜?

### 율법의 가치

- In the ancient Near East, gods were not known for their consistency. Worshippers were left to guess what might please their god or displease him, and this could change from day to day.
- That doubt and uncertainty led to constant confusion, and one could only guess whether he or she was in favor or out of favor by evaluating one's daily fortune.
- 율법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
  - 그들의 신(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로 선택.
  - 그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 것.

### 율법의 가치

- 고대 근동지방 나라들이 갖고 있던 법과 이스라엘의 율법이 비슷해보이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들이 더 많음.
  - 고대 근동지방에서 법이란 the tool of society to govern itself; 이스라엘에서는 법이 God's revelation이었음.
  - 근동지방에선 율법을 어기는 것이 an offense against society; 이스라엘에서는 an offense against God.
  - 근동지방에선 율법이 사회의 질서를 강조했으나, 이스라엘에선 율법이 right behavior in the eyes of God을 강조

### 율법의 가치

-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특이한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없음 (the burdensomeness of the law).
- 율법은 a great example of God's love for them that he would communicate to them in this way.
  -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복받았다고 느낌 (considered themselves fortunate to be able to know what God required of them).

### 율법의 가치

- 율법은 was viewed as a delight rather than drudgery
- As freedom of revelation rather than fetters of restriction.
- 신명기에 이런 율법의 밝은면이 부각되어 있음.
- 신약성경에서 if Paul conveyed any disenchantment with the law (e.g. Gal. 3), it is only in the sense that the Jews of his time had attempted to make the law a vehicle by which they people of God may be identified (and thus the keeping of it a vehicle for salvation), rather than only a vehicle of God's revelation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만든 것이 문제).

## 율법의 가치

- The fact that the law is not an example of the gracious provision of salvation does not mean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n act of grace.
- The grace of God is evident in providing salvation as well as revelation. The two ought not be confused.
- 내 삶의 혼란...
  - 절대기준이 없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 경험
  - 작은 도둑질 ... 도둑질의 정의 변경 - 홍길동
  - 밤에 신호등 지키기? 왜 1부1처제가 꼭 맞는건지? 왜 꼭 결혼이란 제도가 있어야 하는건지? 왜 정부란 존재가 사람을 처벌할 정도로 파위가 주어져야 하는건지? 약간의 뇌물(?) ... 관행? 관습은거 아닌지? 꼭 혼전순결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요즘은 아무도 안그러는데?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인건지? 혼전동거는 지해 아닌지?
  - 그냥 혼란이 아닌 뭐가 뭔지 모르겠는 depressing experience. 우울함...